

한약산업 분류 개선 방안 연구

현은혜¹, 박지은², 박유선³, 임병목^{4*}

¹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의료관리학연구소, ²한국한의학회연구원 글로벌협력센터
³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 정책지원센터, ⁴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인문사회의학교실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the classification of Korean Medicine industry

Eunhye Hyun¹, Ji-Eun Park², Yooseon Park³, Byungmook Lim^{4*}

¹Institute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Medical Research Center

²Center for Global Collaboratio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³Policy Development Center, Development of Korean Medicine Policy, National Institute for Korean Medicine Development

⁴Division of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revised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Korean Medicine (KM) industry that is practically feasible, ultimately laying the groundwork for the KM industry's development.

Methods: The draft of classification structure and categories were established through review of literature on existing classification systems related to KM or industry. The experts who affiliated to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n KM industry were invited to conduct reviews for enhancing the draft's practical validity and usability. The review process was iterated until consensus was achieved among the experts, ensuring the revised classification was comprehensive and robust.

Results: Three drafts were created in total, and the final revised classification system consisted of the 'KM industry' and the 'KM-related industry' (indirectly related or supportive of the KM industry). The 'KM industry' includes KM medicaments, KM medical instruments and appliances, and KM healthcare service. The 'KM-related industry' includes KM research, KM administration, KM education, and KM organization. Two key points emerged from the open feedback: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new sectors within the KM industry and the need for further research on methods to link these new sectors with existing statistical data.

Conclusions: The revised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KM industry developed in this study can serve as an important foundational resource for policymakers, researchers, and industry practitioners in the relevant field, supporting their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Key Words : Korean Medicine, Korean Medicine industry, Korean Medicine industry classification

서론

한약산업이란 한의약과 관련된 모든 생산활동으로서, 한의약의 자원, 기술, 지식을 활용하여 부가가

치를 창출하는 산업군을 총칭하는 것이다.¹⁾ 구체적으로 물질 재화인 한약재, 한약재를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 및 한의학적 원리를 활용한 의료용구, 지적 재화인 한의 의료서비스, 한의약 정보서비스 등의 생

• Received : 29 June 2024

• Revised : 31 July 2024

• Accepted : 19 August 2024

• Correspondence to : Byungmook Lim

Division of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49, Busandaehak-ro, Mulgeum-eup, Yangsan, Republic of Korea

Tel : +82-51-510-8403, Fax : +82-51-510-8446, E-mail : limb@pusan.ac.kr

산, 가공, 유통, 소비의 전 과정 및 이와 관련된 전후방 연계산업이 포함된다.¹⁾ 한의약산업의 매출 규모는 2021년 기준 10조 8,847억원으로 2019년의 10조 3,630억원에 비해 5.0% 증가하였으며, 관련 종사자 수도 매해 1.4%~8.3%씩 증가하는 등 고용 측면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²⁾

우리나라 정부는 한의약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3년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6년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시작으로 5년 마다 한의약산업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오고 있다.^{3,4)} 가장 최근에 수립된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2021~2025)」에는 한의약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세부계획으로서 한의약 연구개발 지원체계 확대, 첨단기술을 활용한 한의약 발전 기반 마련, 한약재 품질 향상 및 공급체계 개선, 한의약 산업 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이 포함되었다.⁴⁾ 이를 통해 정부는 보건업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한의약산업의 구조를 다변화하고, 투자 지원, 제도 개선, 연구개발 확대,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한의약산업의 매출 규모를 2030년까지 20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⁵⁾

효과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현황 파악과 장기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이는 산업 통계와 분류의 중요성을 의미한다.^{6,7)} 그러나 신현규(2004)의 연구⁸⁾에서 처음으로 한의약산업의 정의와 분류가 조사된 이래, 한의약산업의 분류에 관한 논의는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2005년까지 공공기관의 발간 자료에서 한의약산업은 의약품산업 중 하나인 ‘한약산업’으로 포함되었고, 이후 2006년부터는 ‘한의약산업’으로서 의약품산업과 구분되었으나 여전히 보건산업의 하위 요소로 포함되었다.¹⁾ 이후 서정교(2009)의 연구⁹⁾와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2009)의 보고서¹⁰⁾에서 한의약산업의 분류가 일부 다루어졌으나, 그 비중이 전체 연구의 일부에 그쳐

구체적인 논의로 진전되지 못하였다.

현재 제도 수준에서 사용되는 한의약산업의 분류 체계는 크게 두 자료에 근거를 둔다. 하나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약산업실태조사’로 2014년부터 한의약 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2년 마다 수행되는 국가승인통계이다.²⁾ 이 조사에서 사용되는 분류는 임명선 외(2012)의 연구¹¹⁾에서 개발된 결과를 개정하여 대분류를 제조업, 소매업, 보건업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증분류와 세분류를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의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한의학진흥원의 ‘한의약산업통계집’으로 2019년부터 한의약산업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들을 수집 및 통합하여 발간되는 이차자료이다.¹²⁾ 이 자료에서 사용되는 분류는 보건산업의 분류¹⁾와 유사한 형태로, 크게 한의약산업과 한방응용산업으로 구분되며 각각은 재배·조제제조·서비스와 인삼류·건강기능식품·한방 화장품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의약 분야의 대표적인 두 기관에서 상이한 한의약산업 분류체계를 사용함에 따라 정책적 논의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고용통계와 같은 기초 자료 구축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원외탕전 등 새롭게 성장하는 영역을 반영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¹³⁾

한의약산업 분류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지만, 한의약산업에 속하는 업종들이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다양한 분야에 분산되어 있어 그 영역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초기 단계에서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특정 산업 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기존의 표준산업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통계청의 ‘산업 특수분류’가 운용되고 있다. 산업 특수분류란 표준산업분류에서 해당 산업활동을 별도로 재분류(발취, 통합, 세분 등)한 것으로, 2024년 1월 기준 총 22종이며 보건복지부 또한 2020년에 바이오헬스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정립한 바 있다. 즉, 한의약산업 분류체계의 개정을 특수분류의 일환으로서 접근할 수 있다. 산업 분류를 통해 산출된 자료는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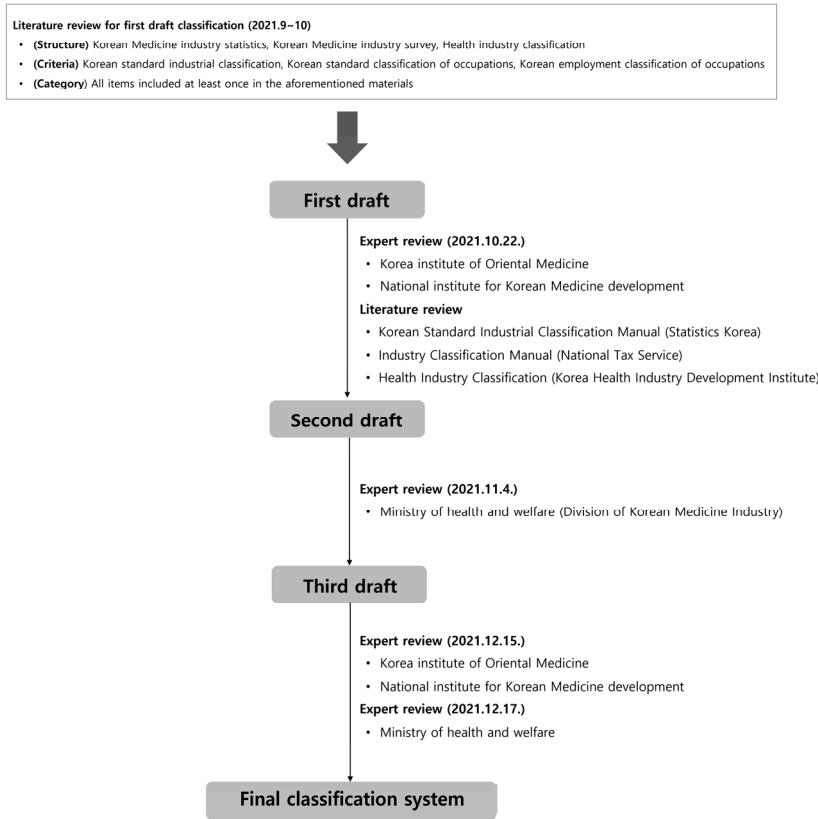


Fig. 1. Flow chart of the development for Korean Medicine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가가 해당 산업을 신산업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활용되므로, 타당한 산업 분류의 개발 및 시의성 있는 개정 작업은 해당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의학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서 정책적 타당성을 갖춘 분류체계 개정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한의학산업 전반의 현황을 파악하고, 수행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한의학산업의 발전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첫째, 연구에서 수행된 문헌 조사와 전문가 검토 및 합의를 개술하고, 둘째, 최종 개정안이 도출되기까지의 중간 과정을 상술하며, 마

지막으로 고찰 및 결론에서 연구에서 도출된 최종 개정안이 실제 제도 내에서 구현되기 위한 실무 방안 및 절차를 제안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조사와 전문가 합의를 통해 한의학산업 분류체계의 개정안을 도출한 것이다. 문헌 조사를 통해 개정안의 초안(1차 개정안)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반복적인 검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된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그 과정은 Figure 1에 요약되어 있다.

문헌 조사는 1차 개정안의 기본적인 구조, 기준,

범주를 설정하고 이후 전문가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개별 업종에 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하거나 기존 분류체계와의 기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자료원으로는 한의약 관련 법령, 한의약산업 및 보건산업에 관한 보고서와 학술연구가 포함되었다. 자료원의 수집은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원의 출판 시기는 제한되지 않았는데, 이는 축적된 선행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약산업 분류체계에 관한 가능한 많은 문헌을 확보하고 분류체계의 변화 과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함이었다.

전문가 검토와 합의는 개정안의 실무적 타당성 및 활용성을 향상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전문가는 대표적인 한의약산업 유관 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업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임의 표집되었다. 유관 기관은 한의약산업실태조사를 공표하는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약산업통계집과 한약소비 실태조사를 발간하는 한국한의학진흥원,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로 설정되었다. 연구진과 전문가는 사전에 조율된 일정에 모여 각자의 견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공유하였다. 상충되는 의견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연구진이 관련 내용을 다시 조사한 후 다음 검토 일정에서 재논의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과정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세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두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되었다.

분류체계의 개정 과정

1. 1차 개정안의 작성 및 전문가 검토

1차 개정안의 분류 구조, 기준, 범주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첫째, 분류의 구조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구성되었다. 이는 한의약산업 및 보건산업에 관한 선행 사례들, 즉 보건산업백서¹⁾, 한의약산업실태조사²⁾, 한의약산업통계집¹²⁾의 분류 구조

를 조합한 것이다.

둘째, 분류의 기준으로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분류체계가 고용통계 등 한의약산업 관련 통계자료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기본적으로 산업활동 관련 통계자료 수집, 제표, 분석 등을 위해서 활동 분류 및 범위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통계법에서는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통계 작성기관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다.¹⁶⁾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도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다수 법령에서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된다.¹⁶⁾

마지막으로, 분류의 범주로는 문헌 조사를 통해 수집된 한의약산업 관련 선행연구와 정책보고서에서 언급된 모든 항목들이 포함되었다.^{1,2,8-12,17)} 이는 1차 개정안의 경우 향후 전문가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항목은 제외되고 필요한 항목은 보완 및 정교화될 것임을 고려한 것으로, 1차 개정안은 한의약산업의 다양한 측면을 충분히 반영한 초안으로 구성하기 위함이었다.

1차 개정안(부록 1)에 대한 검토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소속 전문가 2인과 한국한의학진흥원 소속 전문가 1인이 참여하였으며, 검토 의견은 분류체계의 전체 수준과 세세분류 수준에서 논의되었다. 전체 수준에서는 본 연구의 분류체계에서 포괄하는 한의약산업의 범위를 법적 정의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파생산업을 포함할 것인지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또한, 파생산업을 포함하는 경우 한의약산업과의 연관성에 따라 분류체계 내에 하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세세분류 수준에서는 개별 세세분류의 제외, 포함, 재검토 여부에 대해 논의되었다. 1차 개정안에 포함되었지만 한의약산업과의 연관성이 낮은 ‘기타 발효주 제조업’,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등 다수의 세세분류에 대해 제

외 의견이 수집되었다.

제외 또는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전문가 간의 의견이 다르거나 해당 업종에 대한 추가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진이 추가 정보를 수집하여 다음 검토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기타 작물 재배업’과 ‘기타 식품첨가물 제조업’은 각각 약용작물과 원외탕전이 일부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한의학산업과의 연관성은 인정되지만 해당 세세분류 내에서 한의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완제 의약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의료용기기 제조업’ 등의 경우 해당 세세분류를 삭제하기보다 이를 응용하여 한의학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세세분류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2. 2차 개정안의 작성 및 전문가 검토

1차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중 전체 수준에서 한의학산업의 범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산업 분류체계¹⁶⁾를 고려하여 파생산업을 포함하며, 이에 따라 한의학산업과의 연관성 정도를 기준으로 하위 구분이 설정되었다. 하위 구분은 보건산업 분류체계의 구성⁶⁾—핵심 보건산업(전적으로 보건과 관련된 산업으로 의약품산업, 의료기기 산업, 화장품산업, 식품산업, 의료산업을 포함하며, 주로 의료법, 식품위생법, 노인장기요양법, 약사법 등에서 핵심적으로 규정한 산업을 포함), 부분 보건산업(부분적으로 보건과 관련된 산업으로 보건 또는 복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및 식의약품 등의 안전 또는 임명 보호와 관련된 산업을 포함), 보건 지원산업(보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문으로 보건 관련 공공기관, 보건관련 서비스업 보건 단체 등을 포함함)을 참고하여 한의학산업을 다시 ‘한의학산업’과 ‘한의학 연관 산업(한의학산업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후방에서 지원하는 산업)’으로 구성하였다. 한의학산업의 전체 구성은 ‘한의학산업’은 한의약품 산업, 한의의료기기 산업, 화장품 산업, 한의의료 산업으로, ‘한의학 연관 산업’은 한약유래제품 산업, 한의학 지원 산업, 범주

명 미정으로 설정되었다. 한편, 세세분류 수준의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¹⁶⁾와 국제창업종류 분류 해설¹⁸⁾의 업종 설명을 근거로 연구진이 제외 또는 포함을 결정하여 2차 개정안을 작성하였다. 다만 해당 업종 설명과 제외 또는 포함 결정은 다음 전문가 검토에서 공유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차 개정안(부록 2)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소속 전문가 2인의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1차 개정안과 이에 대한 검토 의견도 공유되었다. 전체 수준에서 파생산업을 포함하는 한의학산업의 범위와 하위 구분은 타당하다고 평가되었다. 한의학산업 중 한의약품의 ‘기타 작물 재배업’은 약용작물에 해당하는 분류로 구분하여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며, ‘완제 의약품 제조업’은 생약과 천연물신약 등의 비중을 고려하여 한의학산업과의 관련성을 평가해야 하고, ‘한의약품 제조업’은 한약제제와 한약규격품 등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에 포함된 한약업사와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에 포함된 약국과 한약국 등을 통합하여 별도 세세분류로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2차 개정안에 포함된 세세분류 이외에 한의약에 특화된 세세분류 신설(가칭 ‘한의학 의료기기 용품 제조업’)이 제안되었다. 한의 화장품과 그 세세분류인 ‘화장품 제조업’은 한의학산업에서 가지는 중요성과 비중을 고려할 때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한의의료 중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방사선 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은 삭제하고, ‘요양병원’은 개설자가 한의사인 경우에 한하여 포함하며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다음으로, 한의학 연관 산업에서는 ‘한의학 지원 산업’만 포함하며 나머지 ‘한약유래 제품 산업’ 전체와 ‘유사의료업’은 제외하되 ‘공중보건의료업’은 다른 전문가들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논의되었다. ‘한의학 지원 산

업' 중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과 '보건 및 복지 행정'에 대해서는 한의약에 특화되는 세세분류 신설이 제안되었다.

3. 3차 개정안의 작성 및 전문가 검토

2차 개정안에 포함된 범주 중 '한의 화장품'과 '한약유래제품' 전체와 세세분류 중 '유사의료업'이 삭제되었고, '한의 의료'는 일반병원(요양병원, 한의사가 개설자인 경우에 한함), 한방병원, 한의원, 공중보건의료업으로 수정되었다. 신설 대상 세세분류로는 '약용작물 재배업', '한약 소매업', '한의원 의료기기 및 용품 제조업', '한의학 연구개발업', 그리고 '한의학 보건 및 복지 행정'이 있었다.

3차 개정안(부록 3)에 대한 검토는 1차 개정안 검토에 참여했던 한국한의학연구원 소속 전문가 1인과 한국한약진흥원 소속 전문가 1인, 보건복지부 소속 전문가 2인 순으로 수행되었다. 세세분류와 관련 업종 정의가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수준에서 개정안은 내용 타당성과 기준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한의약산업과 한의학 연관 산업으로의 구분도 적절하다고 평가되었다. 다만, 한의약산업의 하위 구분에 1-2-3차를 지정한 것은 삭제하도록 제안되었다.

세세분류 수준에서는 '약용작물 재배업'의 신설은 적절하며, '완제의약품 제조업'은 생약제제, 천연물 신약, 일부 한약제제 등이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이들의 비중은 현재 작지만 장기적 관점에는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은 그 중 약용작물(한약재)이 차지하는 비중과 다른 분류와의 형식적 일관성을 고려할 때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고, '한약 소매업'은 신설을 유지하되 해당 범주에는 한약규격품, 한약업사, 한약국과 함께 한약조제약국과 원외탕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한의 의료용 기기 제조업'은 이 역시 현재의 비중은 작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끝으로, 한의학 연

관 산업 중 '한의학 연구개발업'과 '한의학 보건 및 복지 행정'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평가되었다.

4. 최종 개정안 도출

3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을 삭제하고 '한약 소매업'의 범주를 구체화하는 등의 수정을 거쳐 전체 전문가들에게 개정안을 회람하고 의견을 조화하였다. 추가적인 제외, 포함, 재검토 사항이 없다고 확인되어 최종 개정안이 결정되었으며 이는 Table 1과 같다(부록 4). 최종 개정안은 크게 한의약산업과 한의학 연관 산업로 하위 구분되며, 한의약산업은 다시 한의약품, 한의의료기기, 한의의료로 구성되었다. 한의약품에는 농업, 어업 및 임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이, 한의의료기기에는 제조업이, 한의의료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포함되었다. 한의학 연관 산업은 한의연구, 한의행정, 한의교육, 한의조직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대분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공공 행정, 교육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포함되었다. 신설 세세분류로는 약용작물 재배업, 한약 소매업(한약조제약국·한약국·한약업사·원외탕전), 한의의료기기 제조업, 한의 연구개발업, 한의 보건 및 복지 행정이 선정되었다.

한의약산업 관련 세세분류의 신설은 전문가 합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제안된 의견으로, 현행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하면 세세분류 중 한의약산업이 일부 포함되거나 유관한 한의약산업 업종들이 여러 세세분류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차 개정안의 한의약품 중 '기타 작물 재배업'에서 약용작물과 관련된 업종만을 추출하여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매 및 소매업 중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에 포함될 수 있는 한약업사와 1차 개정안의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에 포함되는 약국(한약국), 그리고 한약규격품 제조에 관한 업종을 합하여 별도의 세세분류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기존 세세분류를 근거로 산출된 통계자

Table 1. Revised classification system of Korean Medicine industry

KM industry			
Section	Division	Group	Class
Korean Medicine medicament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Growing of crops	Growing of other crops Growing of medicinal plants*
	Manufacturing	Manufacture of pharmaceuticals, medicinal chemical and botanical products	Manufacture of finished medicaments Manufacture of herb medicaments Manufacture of finished medicaments Manufacture of herb medicaments
Korean Medicine medical instruments and appliance	Wholesale and retail trade	Retail sale in other goods in specialized stores	Retail sale of Korean Medicine pharmaceutical goods*
	Manufacturing	Manufacture of medical, precision and optical instruments, watches and clocks	Retail sale of pharmaceuticals, medical equipment, cosmetics and perfumery Manufacture of other medical and surgical equipment and orthopedic appliances Manufacture of Korean Medicine medical instruments and appliances
Korean Medicine healthcare service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Human health activities	Intermediate care hospital Korean Medicine hospitals Korean Medicine clinics
		Hospitals activities Medical and dental practice activities Public health centers	Hospitals activities Medical and dental practice activities Public health centers
KM-related industry (indirectly related to or supportive of the Korean Medicine industry)			
Section	Division	Group	Class
Korean Medicine research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on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on natural sciences development on Korean Medicine*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compulsory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 industrial and social policy of community	Regulation of the activities of providing health care, education, cultural services and other social services, excluding social security
Korean Medicine education	Education	Higher education	Universities Graduate schools
	Membership organizations, repair and other personal services	Membership organizations Business, employers and professional membership organizations	Business and employers membership organizations Professional membership organizations Professional membership organizations

Note: The Korean and English names used in this table follow the terminology of the 10th edition of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However, the terms for 'Korean Medicine clinics' and 'Korean Medicine hospitals' have been modified from the original terms: 'Oriental medical clinics' and 'Oriental medical hospitals'.

* Based on the 10th edition of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tems requiring new establishment

료들을 한의약산업 관련 신설 세세분류에 적용할 때, 그 비중을 고려하여 값을 추출하거나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문헌 조사와 전문가 합의를 통해 한의약산업의 분류체계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의약산업에 관한 정책 실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검토와 합의를 통해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과 활용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전문가 합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제안된 세세분류의 신설은 본 연구의 결과가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관련 추진을 위한 실무 방안 및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정책 방향은 크게 세 단계에 걸쳐 설정한다. 첫 번째로, 한의약산업 분류 개정의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 기본 방향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을 통한 한의약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한의약산업 수요 반영 및 현장성 제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활용성 제고, 미래지향적 분류 개선으로 한다. 두 번째로, 기본 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설정한다. 전략은 기본 방향의 세부 내용에 맞게 현장성, 활용성, 미래지향성으로 한다. 현장성이란 한의약산업 관련 현장성 제고를 지향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을 위해 한의약산업 관련 학계, 산업계 및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하는 것이다. 활용성이란 한의약산업의 수요 및 활용도를 최대한 반영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현장 중심 분류 개정으로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성 등을 확보하고 통계목적 이외에도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법령에서 산업영역을 결정하는 기준 및 정책 수립 및 추진에의 활용성 제고하는 것이다. 미래지향성이란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미래지향적 산업분류 개선을 궁극적 목

표로, 미래산업과 신기술 변화 등에 대응하는 분류 개선을 지향하는 것이다. 세번째로, 상술된 방향과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로 한의약산업 관련 세세분류 신설을 설정한다.

한의약산업의 일반적인 포괄 범위 및 여타 산업분야와의 연계 및 등가성 등을 고려할 때, 최종 개정안에 따른 신설 대상 세세분류로는 ‘약용작물 재배업’, ‘한약 소매업’, ‘한의 의료용 기기 제조업’, ‘한의약 연구개발업’, ‘한의약 보건 및 복지 행정’이다. 다만 분류 개선의 시급성과 각 세세분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약용작물 재배업’과 ‘한약 소매업’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부록 5). 첫째, ‘약용작물 재배업’은 한의약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기타 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여타 사료작물, 기름추출용 작물 및 공업용 원료작물 등과 분류상 구분이 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약용작물 재배업’을 별도 세세분류로 신설하여 ‘기타 작물 재배업’을 ‘약용작물 재배업’과 ‘기타 작물 재배업’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둘째, 한약은 의과에서 처방되는 의약품과 구분되는 제품 및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의 분류로 묶여 있어 한약소매업의 명확한 산업 및 인력현황 파악에 제한적이므로, ‘한약소매업’을 별도의 세세분류로 신설을 제안한다. 따라서 ‘한약소매업’을 별도 세세분류로 신설하여 ‘의약품, 의료용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4781)’ 내 별도 세세분류로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위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절차에 의거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본 계획 수립, 의견 수렴, 각종 협의회 및 회의, 국가통계위원회 심의 및 확정으로 구성되며, 각 단계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⁹⁾ 기본 계획 수립은 통계청 주도로 추진 배경, 추진 방향, 추진 계획, 주요 추진 일정, 소요 예산 등으로 구성된 개정 관련 기본계

획을 수립 및 추진하는 것이다. 의견 수렴은 정부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것으로, 개정 계획 알림 이후부터 진행된다. 전체 의견수렴 이후 초안과 잠정안을 대상으로 단계별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조정안 이후는 쟁점 부문 대상으로 협의회로 대체한다. 각종 협의회 및 회의는 주요 안건을 대상으로 업무협의회, 분류심 의회의 등을 통해 정량적 기준, 정성적 기준 등을 토대로 산업분류의 신설, 삭제, 통합 등을 위한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다. 국가통계위원회 심의 및 확정은 최종 심의 및 확정된 결과를 통계청 통계분류 포털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한의약산업 분류 개정 절차 진행을 다음과 같이 계획할 수 있다. 첫째, 한의약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한의약 산업 분류체계의 개정안 및 관련 통계 작성 방안을 논의한다. 둘째, 통계청에서 추진 중인 한국표준산업 분류 제12차 개정 시 (잠정 2031년, 제11차 개정 2024년에서 7년 후) 한의약산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추진을 준비한다. 셋째, 의견수렴 대상 등록기관 (약 1.5천 개)과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시 한의약산업의 분류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 넷째, 경제분류자문위원회, 분류개정심의회, 관계기관 업무협의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의약산업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 마련을 논의한다.

다만 위와 같이 세세분류 신설에 소요되는 시간과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분류체계에 따른 한의약산업 실태조사의 시범조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분류체계의 보완, 검증, 연속성 있는 통계 생산 및 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전문가 그룹이 한의약 관련 기관의 소속 담당자로만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한의약 외 산업 또는 통계 관련 전문가 대상의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산업 분야의 빠른 변화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문헌 조사와 현장 전문가들의 재검토를

통해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의약산업 분류체계 개정을 위한 정책적 연구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관련 인식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이루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한의약산업 분류체계의 개정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 국가통계와의 협업을 통해 제도적 실현을 위한 방안과 절차를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필요한 노력들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한의약산업 분류체계 개정안은 한의약산업의 정책 입안자, 연구자, 산업 종사자들에게 유용한 참고 자료이자 향후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서 한의약산업이 국가 신산업 동력산업으로 육성되고 한의약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시의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감사의 말씀

이 논문은 2021년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명: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참고문헌

1.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White paper of healthcare industry. 2004-2014 [cited 2023 Dec 10]; Available from: URL: <https://www.khidi.or.kr/board?menuId=MENU00086>.
2.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Korean Medicine industry survey. 2014-2021[cited 2023 Dec 15]; Available from: URL: <https://policy.kiom.re.kr/sub0201>.
3.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Interpretation and review process of ‘Act on the Promotion of Korean Medicine and

- Pharmaceuticals'. 2009[cited 2024 June 8]; Available from: URL: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0690.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4th comprehensive plan for Korean Medicine development 2021~2025[cited 2024 May 3]; Available from: URL: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107010000&bid=0042&act=view&list_no=372521&tag=&cg_code=&list_dept=1.
 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ess releas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iscussion on measures to promote the Korean Medicine industry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2023[cited 2024 Mar 15]; Available from: URL: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79196&tag=&nPage=26
 6.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Establishment of healthcare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and utilization of linked statistics. 2013[cited 2024 Feb 10]; Available from: URL: <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1&rowCnt=10&menuId=MENU00085&maxIndex=00001007919998&minIndex=000&schType=0&schText=&categoryId=&continent=&country=&upDown=0&boardStyle=&no1=5&linkId=100793>.
 7. Do SR. (2012). Toward the improvements in health care utilization statistic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91:38-48. <http://doi.org/10.23062/2012.09.5>.
 8. Shin HK. (2004). A research on the Korean medicine industry of define and classification. Korean Journal of Oriental Medicine, 10(1): 97-105.
 9. Seo JK. (2009). Analyses on the economic effects of investment in health industry and Korean Medicine. Review of business & economics, 22(5):2457-2475.
 10.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Policy. (2009). White paper of Korean Medicine.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11. Korea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2012). Establishment of methodology for market research in Korean Medicine.
 12. National Institute for Korean Medicine Development. Korean Medicine industry statistical collection. 2019-2023[cited 2024 April 10]; Available from: URL: https://nikom.or.kr/nikom/board/index.do?menu_idx=38&manage_idx=53
 13. Minjok medicine news. Efforts to secure trust of Korean Medicine doctors in external herbal medicine preparation and concurrent public promotion of Korean Medicinal products. 2022 Dec 8[cited 2024 Feb 10]; Available from: URL: <https://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5582>.
 14. Statistics Korea. Press release: Expansion of 'Industrial Special Classification' development supports new industry growth. 2024 Jan 17[cited 2024 July 29]; Available from: URL: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46&list_no=429099&act=view&mainXml=Y.
 15.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21). 2020 Survey on the status of the biohealth industry. [cited 2024 July 29]; Available from: URL: <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2&rowCnt=10&no1=13>

- &linkId=48874312&menuId=MENU00085&maxIndex=00489128579998&minIndex=00001005409998&schType=1&schText=%EB%B0%94%EC%9D%B4%EC%98%A4&schStartDate=&schEndDate=&boardStyle=&categoryId=&content=&country=.
16. Statistics Korea. (2017). Kore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10th Edition[cited 2023 Dec 15]; Available from: URL: https://kostat.go.kr/board.es?mid=a1040304000&bid=107&act=view&list_no=358712.
 17. Lim B. (2011). The strategy for discovery and industrial promotion of Korean Medicine products. Research report. Pusan national university.
 18. National Tax Service. Manual of National Tax Service Industry Classification. 2020[cited 2023 Dec 15]; Available from: URL: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135775&bsId=1143&adit1Column=%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C%86%8C%EB%93%9D%EC%84%B8>
 19. Statistics Korea. Press release: Revision and promulgation of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2017 Jan 13[cited 2023 Dec 15]; Available from: URL: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58710&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58710&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ORCID

- 현은혜 <https://orcid.org/0000-0002-0011-9111>
 박지은 <https://orcid.org/0000-0003-0323-0680>
 박유선 <https://orcid.org/0000-0001-7206-3201>
 임병목 <https://orcid.org/0000-0002-1290-7705>